

정부, 동유럽 에너지 시장 공략

정부가 동유럽 에너지 신시장 공략에 나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박영준 제2차관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방문해 동유럽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3월9일 밝혔다.

지경부와 폴란드 경제부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원전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IT 등 녹색성장 분야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3월14일에는 루마니아에서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무역과 에너지, IT, 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기업의 루마니아 수처리 플랜트와 환경플랜트 진출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불가리아로 넘어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관련분야에 대한 수출 지원활동을 벌인다.

또한 제1차 산업협력위원회를 열어 인프라, 에너지, 산업기술, 농업,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분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유럽 방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성중공업,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신·재생 에너지,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과 관련기업이 동행했다.

<화학저널 2011/03/09>